

2 고도경제성장의 시대



일상생활 속의 멸종 위기종

재봉틀(1950년), 전기 세탁기(1956년), 휴대용 TV(1965년), 8밀리 촬영기, 영사기 세트(1969년). 이 물건들은 일본의 연말연시의 풍물이라고도 할 수 있는 “세뱃돈 연하 엽서”의 특등과 1등 상품입니다. 텔레비전의 본방송 개시는 1953(쇼와 28) 년으로 1964(쇼와 39) 년의 도쿄 올림픽을 계기로 컬러텔레비전이 널리 보급됩니다. 1950년대 후반부터 현재까지 일상생활을 둘러싼 물건들은 격동적으로 변해갑니다.

패전 후의 일본 경제를 부흥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귀환자 등의 인구 흡수, 식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식량 공급, 자원 개발 등 홋카이도의 역할에 대해 기대가 높아집니다. 1950(쇼와 25) 년의 홋카이도 개발법에 의해 1952(쇼와 27) 년부터 제1기 홋카이도 종합개발계획이 시작합니다. 그곳에서는 산업기반의 정비에 중점이 놓여 댐이나 도로, 항만, 하천 등의 정비, 식료의 증산, 주택 건설 등이 시행되었습니다. 산업을 다시 바로 새우는 열쇠로 여겨진 석탄은 생산량의 증가에 중점이 두어졌습니다. 정부의 보호 아래 홋카이도의 석탄산업은 크게 성장합니다.

195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 정부는 석탄으로부터 석유로 에너지를 바꾸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석유를 대량으로 수입하게 됩니다. 석유는 휘발유나 플라스틱 제품의 원료로도 사용되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안 되는 에너지가 됩니다. 가격이 저렴한 석유와의 경쟁에 패배한 석탄산업은 급속하게 쇠약해지고 홋카이도에서도 탄광의 폐산이 잇따랐습니다.

경제발전이 추진해가는 시대 속에서 사람들의 일상생활도 크게 변해갑니다. 대량으로 만들어진 공업제품이 전국에 널리 보급되고 “소비는 미덕”이라는 말이 유행어가 되며, 새로운 것을 구매하고 낡은 것을 버리는 것이 당연한 추세가 됩니다. 일용품이나 어구, 농구도 수제품부터 공업제품으로 변해가면서 당시 가전제품의 “3종 신기”로 불린 텔레비전, 전기 세탁기, 전기냉장고로 대표되는 가정용 전기제품이 일반 가정으로 보급됩니다. 홋카이도의 추위를 견디는 “삼각 지붕 주택”이 탄생하는 것도 이 당시입니다. 도로가 정비되고 자가용이 급속히 보급되면서 사람들의 행동 범위가 넓어지는 한편, 자가용 이용자가 증가하면서 철도 이용자가 감소하자 이 사태는 홋카이도의 로컬선 폐지로 이어집니다.

이 시대는 또한, 지역개발이나 공해, 차별 등의 문제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발언하고 운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국내와 세계 각지의 운동과 호응하면서 노동자나 학생, 여성, 지역 주민이 일어나서 운동의 주역이 됩니다.



홋카이도 주거지의 변천

1947(쇼와 22) 년, 첫 홋카이도 지사 선거에서 당선된 다나카 도시부미 씨는 주택을 개량한 “한지 주택”의 개발을 중요 정책으로 내세웠습니다. 개발의 중요한 요점은 추위를 막고 어느 정도 공간에 여유가 있는 주거지를 저렴하게 짓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시멘트와 모래, 자갈을 혼합해 굳힌 시멘트 블록을 사용하여 열이 도망가기 어려운 외벽을 쌓아 올리고 복도를 없애, 지붕 밑을 방으로 이용하는 연구를 거듭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삼각 지붕 주택”이라고 불리는 주거가 탄생합니다.



다양한 주장

고도 경제성장 시대는 자연의 파괴와 공해를 문제로 삼게 되며 동시에 세계 각지의 다양한 정보가 전해져오는 시대였습니다. 특히 1960년대 후반경부터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발언하고 세상을 바꾸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집니다. 급속히 진행되는 개발에 대해서 자연의 보호를 주장하는 사람들. 여성, 아이누 민족, 재일 한국인, 조선인, 장애인 등, 잊히거나 뒷전으로 미루어진 입장으로부터의 권리의 주장. 그런 목소리는 현재와 어떻게 이어지고 있을까요.